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AAT 문제 해설

인문사회계열

1. AAT의 목적과 출제 방향

이번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한 AAT(진학적성검사)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현실 적용 능력, 다양한 독서를 통한 종합적 사고능력, 그리고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갖춘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AAT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 등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비판적 ·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하였다.

2. AAT의 주제 및 출제 배경

경북대학교 AAT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주제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이번 AAT 문제는 아래의 10개 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문에 대한 독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및 적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 문학 작품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세계관과 사회 구조적 관점
[2] 윙크의 문화적 의미와 과학적 방법론
[3]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4] 최빈국에 대한 해외 원조의 필요성
[5] 정보 사회의 파놉티콘과 역파놉티콘
[6] 병법에 견주어 본 글쓰기와 현실 인식
[7] 기술의 도입과 노동 통제
[8] 안락사의 유형과 그 문제점
[9] 유혹과 자기 결박의 경제학
[10] 현대 미디어와 메시지의 이해

3. AAT 제시문 및 문제 유형

올해 실시된 AAT 문제는 다양한 문헌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주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 단답형 또는 40자~100자 이내의 약술형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제시문은 김광규의 「인왕산」, 장유의 「와명부(蛙鳴賦)」, 김용락의 「대구의 페놀 수돗물」, 엄기홍의 『정치학연구방법론으로의 초대』, 밀의 『공리주의』,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벤담의 『파놉티콘』, 푸코의 『감시와 처벌』, 박지원의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피어 싱어의 『실천윤리학』, 호머의 『오디세이』, 셸링의 『갈등의 전략』, 기틀린의 『무한 미디어』 등 다양한 동서양의 고전 및 명저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4. 교과서 관련 내용

이번 AAT 문제는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한 것으로서 그 주제 및 제시문은 대부분 중 · 고등학교 인문 · 사회계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면 AAT 문제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논술 주제 및 제시문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번 (주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세계관과 사회 구조적 관점)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253-258쪽.
고등학교 『국어(상)』(교학사),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그린 비즈니스 삼림', 209-211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지학사),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125-126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140-149쪽
2번 (주제: 윙크의 문화적 의미와 과학적 방법론)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천재교육),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24-49쪽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학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51쪽
3번 (주제: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고전적 공리주의', 154-155쪽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학사),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와 현대 공리주의’, 142-143쪽

4번 (주제: 최빈국에 대한 해외 원조의 필요성)

고등학교『경제』(교학사), ‘세계화와 정보화’, 234-243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천재교육), ‘해외 원조와 인류애의 실현’, 300-303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부강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320-323쪽

5번 (주제: 정보 사회의 파놉티콘과 역파놉티콘)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학사), ‘민주주의와 참여’, 240-247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정보 통신 기술과 윤리’. 162-167쪽

고등학교『사회·문화』(천재교육), ‘정보사회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34-237쪽

고등학교『사회·문화』(교학사), ‘정보사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61-264쪽

6번 (주제: 병법에 견주어 본 글쓰기와 현실 인식)

고등학교『국어(하)』(미래엔 컬처그룹),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 196-201쪽.

고등학교『국어(상)』(창비), ‘한바탕 울 만한 자리’, 29-33쪽.

고등학교『문학I상』(형설출판사), ‘호질’, 61쪽

고등학교『문학 상』(케이스), ‘양반전’, 180쪽

고등학교『문학 하』(지학사), ‘양반전’, 126쪽

고등학교『문학 하』(중앙교육진흥연구소), ‘호질’, 134쪽

7번 (주제: 기술의 도입과 노동 통제)

고등학교『사회문화』(교학사) ‘산업화는 노동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44-249쪽

고등학교『경제』(교학사), ‘분업과 특화를 통한 상호 이익의 추구’, 40-41쪽

고등학교『경제』(씨마스), ‘분업과 교환 이익’, 37-41쪽

고등학교『세계사』(금성출판사), ‘산업사회의 형성과 19세기 문화’, 270-276쪽

고등학교『세계사』(교학사), ‘산업사회와 산업화 사회’, 225-235쪽

8번 (주제: 안락사의 유형과 그 문제점)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안락사와 뇌사의 윤리적 문제’, 124-125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천재교육), ‘뇌사와 안락사에 관한 논쟁’, 72-75쪽

9번 (주제: 유혹과 자기 결박의 경제학)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I』(천재교육), ‘행동과 게임이론’, 101-103쪽

고등학교『경제』(교학사),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 28-39쪽

고등학교『경제』(씨마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27-33쪽

10번 (주제: 현대 미디어와 메시지의 이해)

고등학교『사회·문화』(천재교육), ‘대중매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196-197쪽

고등학교『사회·문화』(교학사), ‘사회 제도로서의 대중매체’, 207-214쪽

5. 문제 해설

■ 1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김광규 시인의 「인왕산」이라는 시로, 인왕산을 의인화하여 울창하고 장엄했던 인왕산이 인간들에 의해 피폐해진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전에는 호랑이가 가득할 정도로 울창하고 길게 산자락이 뻗어 있었으나 지금은 인간들에 의해 마구 훼손됨으로써 메말라가고 협소해진 인왕산의 초라한 현실은 “늘그막에 셋방살이를 하는 인왕산”이라는 구절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이 시는 인간 중심적인 개발 논리로 인해 자연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조선후기 문인 장유(張維, 1587-1638)의 「와명부(蛙鳴賦)」라는 글로, ‘묵소자’라는 인물이 어떤 ‘객’과의 문답을 통해 생태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묵소자는 못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괴롭게 여겨 모두 죽여 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에 대해 객은 묵소자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인간과 자연만물은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인간이야말로 개구리보다도 더 시끄럽고 해로운 “대와(大蛙, 큰 개구리)”일 수 있다는 구절을 통해,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 자연과 인간과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김용락의 「대구의 페놀 수돗물」이라는 시로, 사회 구조적 병폐와 관련한 환경(생태)문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벌기업에 의해 강물 속으로 버려진 공장 폐수, 페놀을 머금고 썩어가는 강물,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망가지는 인체(人體), 식수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을 르뽀르따즈 형식을 통해 생생히 재생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환경(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야기되는 생태문제뿐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의 사회 계층 등의 사회구조적 병폐와 관련한 생태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국어(하)』(창비),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253-258쪽.
고등학교 『국어(상)』(교학사),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그린 비즈니스 삼림', 209-211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125-126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140-149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환경(생태)문제와 관련한 (가), (나), (다) 세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인간에 의해 황폐해진 자연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환경문제(생태문제)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인간중심적인 개발 논리에 의해 자연이 황폐하게 된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서는 인간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관점을, (다)에서는 환경(생태)문제에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문제도 연관되어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와 (다)의 입장을 토대로 서술하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환경(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환경 문제가 사회 구조적 병폐로부터도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엄기홍의 책 『정치학연구방법론으로의 초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양적 연구방법은 경험적 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현상들 간의 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한편 질적 연구방법은 경험적 현상이란 국가 또는 문화마다 독특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각 국가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현상(예. 윙크)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현상(윙크)과 다른 현상(예. 친밀도) 간에 파악된 관계는 국가마다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각 국가에서 관측된 현상들이 피상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이면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면(A 국가의 윙크와 B 국가의 윙크), 현상들(윙크와 친밀도) 간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 문화 등에서 파악된 현상들 간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같은 현상들일지라도 다른 국가에 적용될 때는 관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조현용의 논문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에서 제시된 윙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천재교육),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24-49쪽.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교학사).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24-51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토대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A 국가의 인류학자 갑은 비언어적 행위의 하나인 윙크가 친밀도를 높이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갑 학자가 이용한 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실험 방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갑 학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학생들을 피실험자로서 선택함으로써 초기의 집단 간 친밀도 평균을 같게 하였다. 이후 피실험자에 대한 무작위적 배분을 통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에는 많은 윙크를 유도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실험 후 발생할 수 있는 친밀도의 차이가 집단 간 윙크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했다. 갑 학자의 연구 결과는 갑 학자가 예상한 바와 같이 윙크는 친밀도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A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국가에서도 발견됨으로써 갑 학자의 연구가 예외적 연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B 국가에 적용하고자 을 학자는 윙크의 의미가 A 국가와 B 국가가 같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갑과 을 학자의 연구 결과 차이가 연구 설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 학자는 갑 학자의 연구 절차와 설계를 그대로 따라 했다. 그렇지만 B 국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을 학자의 연구는 갑 학자의 연구 결과와 달리, 윙크가 친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을 학자가 전제한 바와 달리 A 국가와 B 국가에서 윙크의 의미는 다르며,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문화에 따라 윙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는 "문화에 따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는 "윙크가 A 나라에서는 친밀감을, B 나라에서는 적대감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 3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밀(J. S. Mill)의 『공리주의』와 샌델(M.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이 글은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나아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대비되는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소개한 후에 그러한 밀의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벤담은 여러 쾌락들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쾌락을 양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벤담의 입장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저급한 철학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

한 비판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하기 위해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는 등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밀의 주장은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거나 공리주의적 기본 전제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고전적 공리주의', 154-155쪽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와 현대 공리주의', 142-143쪽

▶ 문제 해설

3-1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더불어 비판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밀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쾌락이 고급 쾌락이며, 그렇지 않은 쾌락은 저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즉 선호하는 쾌락이 고급 쾌락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쾌락이 고급 쾌락인 이유는 그 쾌락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밀은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선호한다.'는 사실 판단으로부터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고급 쾌락이다.'라는 가치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선호한다' 또는 '바란다'는 것은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바람직하다', '고급이다'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과 가치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로부터 가치를 직접 이끌어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체스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스를 선호한다고 해서 체스가 고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밀처럼 사실로부터 가치를 이끌어 내게 되면 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른다. 따라서 밀이 범한 오류를 <보기>에서 고르면 ⑥번이다.

3-2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더불어 비판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밀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유지에 기여하는 쾌락을 더 바람직한 고급 쾌락으로, 그렇지 않은 쾌락을 저급 쾌락으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인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을 쾌락에서 찾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밀이 인간의 자유나 존엄성과 같은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여 가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이 공리주의의 기본 전제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공리주의는 가치 평가의 유일한 기준을 쾌락으로 삼아야 하는데,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때 자유나 존엄성과 같은 쾌락 이외의 것을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 4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의 『빈곤의 종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가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이들 지역에서는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이므로 이를 위해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세계화와 정보화', 234-243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천재교육), '해외 원조와 인류애의 실현', 300-303쪽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학사), '부강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320-323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를 기초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간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 그래프는 현재 소득이 A~B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 빈곤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나> 그래프는 빈곤의 덫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 그래프를 통해 현재 소득이 B에 못 미치는 경우 경제는 자생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통해 최소한 B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읽어 낼 수 있으면 된다. 문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면 다음과 같다.

"다음 <가>와 <나> 그래프에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그려져 있다. 두 개의 그래프 중 위의 제시문 내용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은 (가)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현재의 소득이 (B)에 못 미치는 경우 이 경제의 소득은 점점 (A)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이 나라의 최초의 소득이 최소한 (B)를 넘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 가, ㉡: B, ㉢: A, ㉣: B이다.

■ 5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벤담의『파놉티콘』, 푸코의『감시와 처벌』, 홍성욱의『파놉티콘: 정보사회와 정보 감옥』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 알기 쉽도록 재구성 한 것이다. 제시문의 요지는 현대사회의 전자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권력이 우리는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력이 전자기술을 활용해 시민을 감시하는 현대적 상황은 파놉티콘이라는 원형감옥의 구조를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됐다. 원형감옥은 간수는 중앙 감시탑에서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죄수는 간수가 늘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감옥의 규율을 내면화 하게 된다. 즉 간수는 원형감옥의 구조를 통해 매우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으로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자매체와 정보기술, 즉 CCTV, 인터넷 게시판,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은 경우에 따라 권력이 시민을 감시하는 원형감옥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권력은 원형감옥의 간수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모든 신상정보를 독점할 수 있지만, 시민은 죄수처럼 그러한 권력의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과 시민의 '시선의 비대칭성'이 현대사회가 원형감옥이 되지 않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전자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시선의 대칭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권력이 지나치게 시민을 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CCTV 설치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이 필요한 만큼 권력을 볼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한데,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의 감시강화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학사), '민주주의와 참여', 240-247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정보 통신 기술과 윤리'. 162-167쪽
고등학교『사회·문화』(천재교육), '정보사회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34-237쪽
고등학교『사회·문화』(교학사), '정보사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61-264쪽.

▶ 문제 해설

5-1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이론의 현실적용 능력 및 비판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시선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권력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의 초점은 권력이 시민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주어진 보기 ①~④ 중 ②, ④는 권력이 시민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①, ③은 시민이 권력의 활동을 보다 원활히 감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②, ④ 이 된다.

5-2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현실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간단히 말하면, 5-1번 문제를 뒤집어 생각해 보는 문제이다. 즉 제시문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주어진 정보 공개 청구권 강화와 CCTV 설치 제한 규정 강화 등이 '시선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진 공통점을 개념화 하는 문제이다. 질문에서 '시선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향의 한쪽, 즉 '권력자가 시민을 지나치게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대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시민이 권력자를 더 잘 볼(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6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1737~1805)이 쓴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이다. 이 글은 박지원의 처남 이재성(李在誠)이 우리나라 고금의 과체(科體)들을 모아서 엮은『소단적치(騷壇赤幟)』라는 책에 써 준 서문이다. '소단적치(騷壇赤幟)'란 '문단의 붉은 깃발'이라는 뜻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한 탁월한 글들은 승리한 장수의 깃발과 같다는 뜻이다. 박지원은 이 글에서 단순히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일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병법(兵法)에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문인들이 훌륭한 글을 쓴 사례들을 보여주면서도, 과거의 전범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묘한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박지원이 쓴 「증좌소산인(贈左蘇山人)」이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산문은 반드시 한나라 문인의 글을, 시는 당나라 시인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 이를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글쓰기의 병폐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아무리 원전과 같게 모방한다 해도 그것은 모방에 불과할 뿐 원전과 같을 수 없으며, 자신의 시대현실과는 거리가 먼 빈껍데기에 불과하기에 좋은 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나아가면 참다운 의미 있건만"이라는 대목에서 집약되어 있듯, 이 글에서는 과거의 글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처한 시대현실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국어(하)』(미래엔 컬처그룹),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 196-201쪽.
고등학교『국어(상)』(창비), '한바탕 울 만한 자리', 29-33쪽.
고등학교『문학I상』(형설출판사), '호질', 61쪽.

고등학교『문학 상』(케이스), '양반전', 180쪽.
고등학교『문학 하』(지학사), '양반전', 126쪽.
고등학교『문학 하』(중앙교육진흥연구소), '호질', 134쪽.

▶ **문제 해설**

6-1

이 문제는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글쓰기를 병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중 '글자'는 '병졸'에, '글뜻을 펴는 자'는 '장수'에 빗대고 있다. 한 편의 글이 수없이 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듯, 군대는 수많은 병졸들로 구성되며, 그 글자들을 모아 뜻을 펼치듯, 장수는 수많은 병졸들을 모아 지휘하면서 승리를 꾀하게 된다. 따라서 ㉠, ㉡에 알맞은 단어를 제시문 (가)에서 골라 쓰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 병졸, ㉡ 장수"

6-2

이 문제는 (가), (나)의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고전적 글쓰기와 관련한 지식을 확인하고 있는 문제이다. (가)의 밑줄 친 부분은 옛날의 전법을 그대로 활용한 장수는 패배하고 오히려 이를 반대로 적용한 장수는 승리했다는 고사를 통해, 글을 쓸 때 과거의 글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처한 시대현실에 맞게 변용해서 써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제시문 (나)도 단순히 과거의 글(중국의 글)을 답습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처한 있는 시대 현실과 관련한 글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의 밑줄 친 ㉢과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한 글쓰기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면 된다. "과거(다른 사람, 중국)의 글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처한 시대현실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 7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아담 스미스의『국부론』과 마틴 브라운과 피터 필립스가 쓴 논문「미국 통조림 산업에서의 작업장 위계의 역사적 기원」에서 각각 발췌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제시문에서는 기술의 도입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가) 제시문에서는 분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도입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 제시문에서는 분업이나 기계의 도입이 고용주의 노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사회문화』(교학사) '산업화는 노동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44-249쪽
고등학교『경제』(교학사), '분업과 특화를 통한 상호 이익의 추구', 40-41쪽
고등학교『경제』(씨마스), '분업과 교환 이익', 37-41쪽
고등학교『세계사』(금성출판사), '산업사회의 형성과 19세기 문화', 270-276쪽
고등학교『세계사』(교학사), '산업사회와 산업화 사회', 225-235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제시문에서는 기술의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된다는 입장이, 그리고 (나) 제시문에서는 기술의 도입을 숙련공들의 저항에 직면한 고용주의 노동 통제 전략이라는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답하면 된다.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을 통제(고용주의 협상력 강화, 숙련 노동자의 저항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8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싱어(P. Singer)의『실천 윤리학』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글이다. 여기서 싱어는 여러 안락사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안락사는 환자의 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한 경우이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 표명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안락사를 결정한 경우이고, 반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안락사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안락사는 죽임의 수단이나 방법을 기준으로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 거부나 치료 중단을 통해 안락사를 하는 경우이며,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이나 총기와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안락사를 하는 경우이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생활과 윤리』(교학사), '안락사와 뇌사의 윤리적 문제', 124-125쪽
고등학교『생활과 윤리』(천재교육), '뇌사와 안락사에 관한 논쟁', 72-75쪽

▶ **문제 해설**

8-1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 능력과 더불어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경우에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자발적 안락사이며, 치료 중단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그것은 '자발적·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제시문 (나)의 경우에 환자가 식물인간의 상태이기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가족들이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비자발적 안락사'이며, 치료 중단의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그것은 '비자발적·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 : ①번, (나) : ③번이다.

8-2

이 문제는 어떤 주장이나 입장에 대한 비판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고, 치료 중단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잘못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환자가 가족들의 압력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자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약 복용의 경우에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사회가 간섭하여 그것을 막는 것이 정당하듯이,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허용해 줄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자발적 안락사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독극물 등을 사용하므로 살인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가족의 의사 결정이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비자발적 안락사나 반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보기>의 '자발적·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것은 ③, ④번이다.

■ 9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호머의 『오디세이』, 토마스 셸링의 『갈등의 전략』 그리고 이언 에어스의 『당근과 채찍』에서 발췌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제시문들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미래 자신이 취할지도 모르는 선택지 하나를 없애버리거나 거기에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즉 스스로를 제약 속에 결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 제시문에서는 율리시스가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지만 노래를 듣는 순간 노래의 유혹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에서, 노래를 듣더라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자신을 돛대에 묶어 버림으로써 노래도 듣고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나 살아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나) 제시문에서는 인질의 입장에서, 납치범이 공개했을 때 인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납치범에게 고백하고 그 증거를 건네줌으로써, 자신이 풀려난 후에도 납치범의 신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다) 제시문에서는 다이어트의 성공을 방해하는 여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한 일을 지키지 않을 때 큰 비용이 초래되도록 만듦으로써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천재교육), '행동과 게임이론', 101-103쪽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 28-39쪽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27-33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에 나타난 세 가지 사례에서 율리시스, 인질, 그리고 다이어트에 돌입하고자 하는 김씨가 취한 행동에서 드러난 공통된 행동 전략을 유추해 내어 간략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제시문에서 율리시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돛대에 묶어 버렸고, (나) 제시문에서 인질은 납치범의 신원을 밝혀 버리는 경우 납치범이 공개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중범죄 사실을 털어놓아 버림으로써 납치범의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만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다) 제시문에서 김씨가 늦은 저녁 초콜릿 케이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큰 금액을 회사에 기탁해버림으로써 자신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에 스스로 큰 비용을 부가해 버리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답하면 된다. "궁극적 목적을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강제적 제약을 가한다."

■ 10번 문제

▶ 제시문 분석

이 제시문은 미국의 언론학자 토드 기틀린의 『무한미디어』 서문에 나오는 일화이다. 일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세관공무원이 국경에서 밀수가 의심되는 트럭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같은 트럭운전사가 일주일 단위로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세관원은 트럭을 갖은 수단을 통해 트럭을 수색했지만 밀수품을 찾지 못한다. 세관원이 은퇴할 때가 되어 그 트럭운전자에게 고발하지 않으니 제발 당신이 밀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트럭운전사는 그제야 '트럭'이라고 알려준다.

기틀린은 이 일화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전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뉴스의 사실이나 TV 드라마의 이야기와 같은 언어적인 것(세관원이 찾고자 한 것)이 아니고 감각적 자극 그자체 (트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관원처럼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시민들이 미디어를 잘 이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 교과서 관련 내용

고등학교『사회·문화』(천재교육), '대중매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196-197쪽.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사회 제도로서의 대중매체', 207-214쪽.

▶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개념을 추론하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트럭의 문제의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비단 TV나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 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셜 맥루언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메시지 자체를 해석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고 미디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다. 따라서 이 말과 트럭의 일화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답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메시지 자체보다 미디어의 성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미디어 메시지의 의미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전달하는 형식이 더 결정적이다."